

해외사업 활성화로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경남기업(주)



▲ 경남기업(주)이 시공한 인천 송도 벤처빌딩

1951년 창립한 경남기업(주)은 1965년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해외건설면허를 취득해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건설업체다.

IMF 당시 워크아웃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5년만에 워크아웃을 조기졸업 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2004년 대아건설과 합병을 통해 대형 건설사로 급부상했다.

기존 국내 주택 및 토목 부문 사업비중을 줄이고 해외건설, 에너지산업, 해외자원개발 등 수익 다각화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성한 경남기업(주)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17위에 안착하는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김종욱 기전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협력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종합건설사들의 저가수주, 신규물량감소,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의 고충이 협력업체 여러분들에게도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 종합건설사 및 협력업체의 잦은 부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협력업체에서도 시공품질 관리, 신기술 개발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진출 확대에 발맞춰 해외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에 하고 싶은 말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와 설비건설업체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설비건설”지는 각종 법령과 고시, 신기술과 신자재, 건설동향 예측 등 온오프 라인으로 많은 정보제공에 일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공사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해외공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향후 설비건설업체의 해외진출시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외공사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해외건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해외공사 진출 의지를 가진 설비건설업체는 물론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기전팀은

경남기업(주)기전팀은 해외인원을 포함해 총 83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설비직은 48명이다.

본사 설비직은 공사관리, 설계, 시공, 공무 해외공사, 품질관리 등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배치시 해외공사 수주 확대에 따른 경험축적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를 대규모 현장에 우선 배치하고 신입사원 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원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현장 OJT(On the Job Training : 직장 내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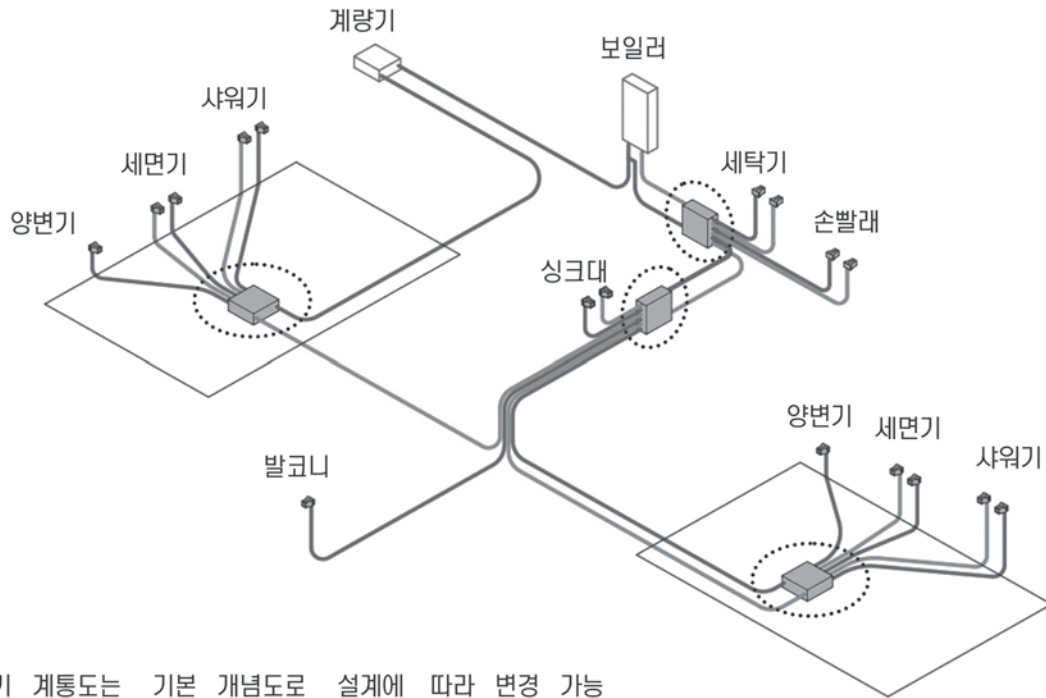
또한 전 직원 각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업무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전팀의 경쟁력을 높여 경남기업(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경남기업(주) 신기술 · 신공법은

■ 무분배기형 이중관배관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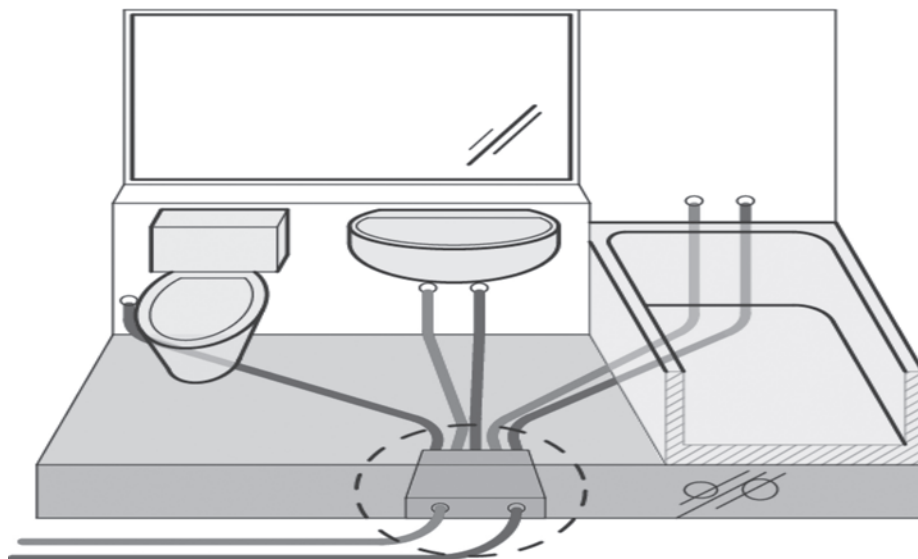
아파트 단위세대 급수, 급탕배관에 적용되는 이중관 배관(PB+CD) 공법으로 메인 분배기를 설치하지 않고 분기박스로 분산 설치해 배관길이 최소화 및 하자발생시 조치가 용이토록 개선한 공법이다.

- 시공방법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옹벽, 바닥 슬라브 동시 타설
- 옹벽 설치시 수전구 선설치
- 바닥 슬라브 작업시 분기박스 설치 및 배관
- 콘크리트 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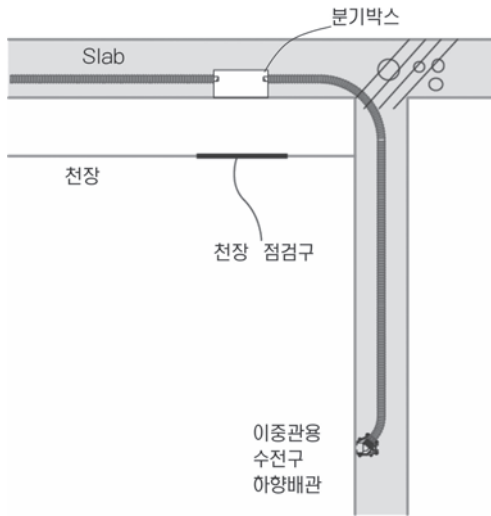
상기 계통도는 기본 개념도로 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 무분배기형 이중관배관 배관 계통도



분기박스 이후배관 : 선 CD관 배관 , 후 PB관 배관

▲ 화장실 배관 상세도



▲ 천장 하향 배관 상세도

- 장점
- 기존 분배기형 이중관 배관에 비해 시공 간편함
- 하자발생시 본층에서 보수 가능
- 조적공사 등 타공정과의 간섭 적음
- CD관에 내장된 PB관 굴곡 반경 최소화로 배관 변형 방지
- 바닥배관과 동시에 배관시공이 이뤄지므로 작업

공정 단축

-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협력업체 평가 및 시공관리

경남기업(주)은 최근 건설업계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상생협력에 관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매년 2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협력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부여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매년 상·하반기 협력업체 평가(공사·공무부 외 관련부서)
- 매년 1월 공고 후 신규 협력업체 등록 실시
- 신규 협력업체 등록 시 심의위원회 개최로 엄정한 심사 후 등록(일부 부실업체 등록 봉쇄)
- 우수협력업체 현금기성 지급 및 입찰기회 우선권 부여
- 최우수협력업체 수의계약 1건 부여



고사
성어

刻舟求劍(세길 각, 배 주, 구할 구, 칼 검)

‘배에 새겨 칼을 구한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

전국시대, 초나라 한 젊은이가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만 실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뿔싸, 이를 어쩐다?’

젊은이는 허둥지둥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 들고 칼을 떨어뜨린 뱃전에 표시를 했다.

이윽고 배가 나루터에 닿자 그는 곧 옷을 벗어 던지고 표시를 한 뱃전 밑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칼이 그 밑에 있을 리가 없었다.

「고사성어」